



이름:

WEEK 12

Mar 17

민수기 12장

11장에서 음식에 대해 불평했던 기록에 이어, 본장에서는 지도권의 문제로 불평이 기록되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핑계일 뿐, 아론과 미리암은, 너만 특별하냐, 하나님은 너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그들의 생각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대화는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불평과 불신, 시기와 비난의 대화들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 1) 2절:
- 2) 9절:

민수기 13장

마침내 가나안 땅 남쪽 가데스바네아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각 지파의 수령 12명을 보냅니다. 이렇게 정탐을 떠나게 된 배경이 신명기 1:21-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자고 하였으나, 백성들의 주장은 무엇이었나요? (신명기 1:19-22을 참고하여 답을 써 보세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히브리서 11:1). 우리는 본장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행하는 갈렙의 용기를 봅니다.

Mar 18

민수기 14장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은 백성들은 소리높여 부르짖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1절).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 하나님을 비난합니다(2-3절). 그들은 이제 한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4절). 여호수아와 갈렙이 온 백성을 향해서 다시 믿음의 용기로 연설을 하지만(6-9절), 백성들은 오히려 그들을 돌로 치려 하였습니다(10절).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을 40년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데, 이 40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33-34절)

민수기 15장

본장은 13-14장의 가데스바네아에서의 불순종 이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어떻게 하나님과 관련을 맺어야 하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재정비 하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제사의식을 상기시키고, 안식일의 규례들을 다시 한번 가르치십니다. 특별히 일상생활에서 여호와와의 계명을 기억하여 존행하고,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에 따라 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옷단 귀에 만든 것은 무엇인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옷단에 달았습니다.

Mar 19

민수기 16장

본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모세의 지휘권과 아론의 제사장직에 관하여 내부 알력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레위의 자손이었던 고라와 그 일당들은 지휘관 250명과 함께 모세를 거스릅니다. 그들은 레위자손으로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것보다, 오히려 어떤 직분을 구하였나요? (8-11절)

*우리도 가끔씩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역보다, 더 좋아 보이는 일에 관심을 갖거나 혹은 분수에 지나도록(3절) 말하거나 행동할 때는 없나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로 가서 심판자처럼 판단하고 행하지 않도록 스스로 겸손하게 엎드리길 기도합니다.

민수기 17장

고라의 사건(16장) 이후, 하나님은 같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돋는 이적을 보여 주십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셨고, 그렇게 택하신 자에 대해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5절, 10절)

"내가 ()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 하리라."

Mar20

민수기 18장

본장에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두가지를 선물로 주셨다고 합니다.

1) 첫 번째 선물(6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동역자를 주심)

2) 두 번째 선물(7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 자체가 선물이라고 하심)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두에게 서로는 선물입니다. 목사도 교회에 주신 선물이고, 교사도, 각 직분자들, 섬기는 이들이 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입니다. 또한 사람 뿐 아니라 직분도 선물입니다. 맡은 직분은 권리가 아니라 선물로 받아 감사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민수기 19장

40년간 광야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은 모두 죽게 됩니다. 60만 장정들만 계산해도 1년에 15,000명, 한달에 1,250명씩 죽게 되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하루에 죽는 사람이 평균 90명 정도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이 너무 많아져 그들을 속히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삼시간에 부정이 온 이스라엘 공동체에 번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하게 된 자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 사용된 '정결한 물' (13절, 20절)은 어떤 동물의 재를 사용하라고 말씀하나요?(9절)

Mar21

민수기 20장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땅으로 정탐꾼을 보내었던 가데스바네아에, 38년의 광야생활 후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놀랍게도 반역의 장소인 가데스에서 이스라엘은 38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물이 없다는 이유로 모세와 아론 앞에 모여 들었습니다(2절).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음으로 불평하는 사건은 출애굽기 17장 르비딤에서, 그리고 본장에 나옵니다. 물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의미로 그곳을 무엇이라 불렀나요?(출애굽기 17:7, 민수기 20:13)

민수기 21장

광야길에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4-5절)에게 하나님은 불뱀들을 백성중에 보내어 물게 하셨습니다. 사실 광야에는 불뱀들이 많았을텐데 그동안 불뱀에게 물려 죽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했을 때(7절), 하나님께서 불뱀에 물린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은 불뱀을 없애주시거나, 해독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뱀을 바라보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고통의 원인이 불뱀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이었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바라보는 것을 그 해결책으로 주신 것입니다.

Mar22

민수기 22장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에 진을 치자, 모압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왕 시혼과 바산왕 옥을 죽인 소식을 듣고, 자신들도 정복을 당할까 변민하여 유명한 점쟁이 발람을 초청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발람은 발락의 첫 번째 요청에 하나님의 지시를 듣고 거절합니다(5-14절). 하지만 발락의 두 번째 요청에 마음이 흔들립니다(15-20절).

"내가 그대를 높여 ()하고, 그대가 네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발람은 신앙적 타협의 진행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타협하고 타락하지 않습니다. 앞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민수기 23장

본장에는 발람의 첫 번째 예언(바알의 산당에서), 두 번째 예언(비스가 꼭대기에서), 세 번째 예언(브올 산꼭대기에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장소가 나빠서 계시가 나쁘다는 생각에 장소를 계속 옮겼을 것입니다. 본장에는 강한 적(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가득한 모압왕 발락의 심정이 잘 보여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저주하려는 발락의 계획도 모른 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안전합니다. 우리는 발락처럼 미래에 대한 염려로 불안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안전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35-39절을 읽어보세요.